

전에 없던 가을 가뭄과 더위 탓으로 가장 먼저 현란한 색채들을 뽐낼 올해 강원도 단풍이 굵지 않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좀 늦기는 해도 이미 백두대간의 높이 솟은 산봉우리에서부터 서서히 물갈 짙어 시작되었다.

질거나 혹은 열은 붉은색 주황색 노랑색으로 수놓아지는 단풍은 '고독한 가을'이란 이미지를 여지없이 날려 버린다.

사람들은 붉은 단풍에 고무되고 주황이나 노랑색 단풍 색깔에서 위로와 안정을 찾는다. 단풍이 심리학자들은 말하지 않는가. 단풍의 과학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냉혹한 과학은 인간의 정서나 감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노랑이나 주황 등의 단풍 색깔은 잎 속의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남아 있는 색소가 공기에 노출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만 붉은 색의 경우 전혀 다른 과정을 밟을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식물들 자라지 못하도록 독을 분비하는 이른바 '아름다운 킬러'라고 과학자들은 이를 불린다. 붉은색 단풍나무의 경우 변화하는 계절에 적응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생성한 안토시아닌(Anthocyanin) 성분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다른 수종의 생장을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철새 오고 단풍 드는데...

한편 가을드워리지만 고니 기러기 시베리아 까마귀 등 겨울 철새들도 어김없이 찾아오기 시작해, 텃새 심한 텃새인 까마귀의 기(氣)겨루기도 목격되고 있다.

신라 불교 도입 초기에 가장 먼저 강건된 사람 가운데 하나인 건봉사는 지금 휴전선과 맞닿은 민통선 안에 위치한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분단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규모로도 한국 최대 사찰이었던 건봉사

의 역사를 보면 전란과의 악연과 폐허가 쓸쓸하고 슬프다. 사찰 입구에 사명대사 좌상을 크게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사찰과 호국불교와의 인연도 짐작케 한다.

아도화상, 도선국사, 나옹선사 등 시대마다의 역량 높은 대덕들과의 인연은 물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통도사에서 왜군이 가져 간 부처님 진신 치아 사리를 거두어 이곳에 봉안했다는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오래전부터 폐허위에 시작된 불사가 지금은 제법 규격을 갖추었다. 북한 금강산을 다녀 온 관광객들이 이곳을 둘러서 가기도 한다.

분위기는 참으로 평화스럽다. 최근 북한의 느닷없는 핵실험은 그 평화스러움에 얼마간의 그늘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철새들의 비상을 보는 텃새 까지의 긴장감과 성질이 다르겠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긴장감을 주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왜란이후 사명대사께서 부처님 진신치아 사리를 왜 이곳에 안치하셨을까? 분단의 가장 민감한 곳에 자리 잡은 건봉사의 오늘을 내다 보셨을까?

건봉사의 평화는 곧 이 땅의 평화라는 생각이 든다.

자들께서는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필자의 견해다. 십주 가르침에는 십지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다. 십지 또한 마찬가지로, 초지(勿地)인 환희지가 마지막 십지인 법운지(法雲地)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화업을 '차제법문'으로 이해하는 탓에 초지에서 십지를 보지 못하고 초지가 십지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본래 원음무애하고 하나에서 모두를, 모두에서 하나를 보는 통합적이며 모든 세계를 두루 회통하는 화업이, 점자적이고 개별적,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웅색한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화업의 '한계'를 초래하고, 특히 '실천' 부분에서의 미흡함은(중래 화업화자들은 '보현행원'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관법'으로만 화업수행을 확립하려 했음), 선종을 비롯한 많은 종파들의 도

전을 받아 결국엔 '교화'만 앞세우는 실천이 없는 '일음일어', 알맹이 없는 '지혜(知慧)의 가르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한 비판과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은 필자가 불 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원음회통하는 '유일한 가르침'인 화업의 비극이다. 특히 모든 방향이 '우주'와 '생명'의 문제로 흐르는 눈부신 21세기에, '우주'와 '생명'을 살리는 부처님 가르침인 '화업'이, 유일하게 우리 모든 생명이 '함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원만무애한 그 '화업'이, 찬란하게 꽃피는 대신 천대받고 마침내 창고에 묻혀 버리는 암담한 현실은, 참으로 아쉬운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이중린(홍익소아과 원장)

불자의 눈

불교계 국제협력단체들의 활동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지구촌공생회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NGO로 등록하면서 한국불교계의 국제협력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KOICA에 등록된 국제협력단체는 68곳. 이 가운데 불교단체는 앞의 두 단체를 포함, 한국JT와 진각복지재단, 이웃을 돕는 사람들 등 모두 5곳이다. 이밖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실천불교가 원활한 국제 교류활동을 위해 'Lotus World'로 이름을 변경했다.

타종교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지만, 불교계가 국제협력활동에 적극 나섰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각 사찰에서 벌이고 있는 '불사(佛事)'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찰의 장건이나 개·중축 등 외형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지구촌 공동의 평화와 행복을 도모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의 불사를 개

척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예를 따따다 사물(四物)을 울리며 하늘과 땅과 물속의 모든 중생에게 보내던 자비심을 지구촌 전역에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불교계의 해외협력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활동에 대해 불자들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미꾸라지나 자리를 놓아주는 것보다 더 의미 깊은 방생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로는 현지 지원 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봉사 영역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대상 국가의 언어와 사회,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셋째로는 이 모든 활동과 더불어 수승한 부처님 법을 함께 전한다는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델링'이다.

현지인에게 불자로서 여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절로 교화활동이 될 것이다. 후여 도움을 베푸는 입장이라고 하여 우월감을 표시하거나 십지가 현지인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신행(信行)'을 겸비한 불자상이 바로 여기서 필요하다.

권경희(불교상담개발원 사무처장)

지구촌 곳곳에 자비를

이렇게 들었다 스타마케팅

온갖 유희(有爲)의 법은 골잡고 그림자 같고 꼭두각시 같고 거품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이러한 것으로 관찰 하여라. <금강경>

100만부 이상 팔려 올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마시멜로 이야기>가 대리번역 논란에 휩싸이면서 스타를 이용한 상술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책 구매자들이 출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굵기야는 역자로 이름을 올린 방송인이 비난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정든 방송'을 그만두고야 말았다.

이런 사건은 스타마케팅의 부정적인 한 단면을 보여준다. 대중매체 발달로 탄생한 '스타'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우리가 TV에서 매일 보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스타들은 TV에 출연해서 상품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시청자들에게 강요한다. <마시멜로...>의 극단화된 스타마케팅은 그대로 적용, 놀라운 판매고를 올려 효과를 봤다.

<마시멜로...>를 펴낸 출판사와 관계자들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비난은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스타가 빛내주는 허상과 상품을 혼동한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들은 스타를 이용하는 상술에 무너진다. 마케팅뿐 아니다. 허상이 지배하는 현상은 정치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허상에 길들여져 그럭저럭 지나다보면 가치기준과 판단 기준은 어느새 내가 아닌 타인에 맞춰지고 나는 사라진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마저 속이게 만든 상(相)에 대한 집착,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헛된 것에 시달리며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거해야 할 적인 것은 분명하다.

박익순(예배부 기자)

기고 전통 화업경 해석의 문제점

각품에서 '전체 화업' 봐야 오류없어

<화업경>은 대단히 난해한 경전이라 해석이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화업의 대가들이 분류와 해석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필자가 보기에 전통 화업경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업을 '차제법문(次第法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때문에 광활한 화업이 왜곡되고 화업의 뜻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우를 범하는 되었다고 본다.

<화업경>의 전통적 해석을 보면 <화업경>은 모두 일곱 장소에서 설해진다. 즉 지상에서 천상으로, 다시 지상의 일곱 곳에서 설해지며 여기에 많은 의미가 부여한다. 이러한 해석은 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한

모순을 자아내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화업은 당연히 '차제법문'이 될 수밖에 없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다시 지상으로 오신 뜻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돈오(頓悟) 원교(圓敎)의 가르침이 훼손되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화업경>은 집성경전(集成經典)이라 지상, 천상, 다시 지상의 개념을 도입할 때 다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무리를 보완하기 위해 화업경 편찬자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보완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 화업 해석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전의 각 품(品)을 화업경 '전체적 흐름'이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따로' 각 품의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내려고 한 것

이다. 그 결과 원래 '함께 존재하는 화업'은 '따로 존재하는 화업'으로 변해 버렸다. 각 품이 '완전한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하위 개념'이 된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심신을 일으키고 십주에 머물며 심행, 심화행, 심지를 거쳐 등각, 묘각에 올라가는 52위의 화업 수행단계 가르침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십신이 십주보다 못하며 심화행 또한 십지보다

당연히 아래이다. 심화행까지를 범부의 경지, 십지 이후를 성자의 경지로 보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생각한다. <화업경>이 성립될 때도 그러하였고 집성 편찬된 현존 경전 자체에도 52위 간에 조금의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아서 상위 지위에 오르는 점오법, 차제 법문'이 생긴 것은 혹시 이런 해석 때문은 아닐까.

<화업경>은 처음 생겨날 때부터 각 품이 그 자체로 '완전한 경전'으로 태어나다. 우리는 각 품에서 '전체 화업'을 보아야 한다.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각 품이 내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화업의 근본 가르침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전통 화업 학



이중린(홍익소아과 원장)

여유보다는 절박함을!



氣功지도사 과정 수련생모집
3박 4일 코-스
61기: 11월 16일 - 19일 (선착순)
62기: 12월 14일 - 17일 (20명)
골반을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 마세요
만병의 원인이 골반, 척추의 변형인데 근본을 놓아두고 어찌 병을 치료한다 할 수가 있습니까?
*상기증에 시달리시는 스님, 쉽게 해결됩니다.
수련 내용
천심양기법 - 소주천속성법 - 천지관기법 - 복부진단법 - 좌골신경통소통법 기록자동법 - 지기상달법 - 진동공(사기배출법) - 온냉교구법 - 견비통오십견대칭요법 임.독맥소통법 - 의념력수련법 - 불문진단법 - 혈해혈소통법 - 편두통해소법 순환계소통법 - 천기하달법 - 적취(만병의원인)해소법 - 남성학강좌 - 제신공배설계소통법 - 전신개혈법 - 안면신경마비해소법 - 정맥류해소법 - 양생검지장
* 구병식식, 재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 몸이 냉해지고, 이유없이 아프고 얼굴이 검어지신분, 얼굴이 검어진것은 사기에 빙의된 것입니다. 손발이 차고 하복부가 냉해지신분. 몸에서 찬기운이 나오는 분은 뼈속에서 냉기가 빠집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분들은 氣수련으로 사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 氣치료법 배워서 사업하십시오. 천일가공 책 : 10,000원
14년전통 천일氣문화센터 http://www.chgg.co.kr
소백산 수련원 : (054)637-9810 서울분회 : (02)3436-3206
주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들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벽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土)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1-8413